



세계 통신장비업체 향후 전망

신성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통신장비업계 현황

통신장비시장은 역사적으로 통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통신장비제조업체가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며 업계 판도의 변동성이 매우 작은 시장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98년 이전 5년 간 세계 10대 장비업체에 위치한 적이 있는 회사는 고작 12개에 불과했다. 이것 또한 AT&T의 통신장비부문이 Lucent Technologies로 분사한 점을 고려한다면 1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수, 합병, 정부규제, 비즈니스 실패 때문에 발생한 세계 통신서비스사업자의 흥망성쇠는 통신장비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 통신장비업체 순위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본 고에서는 경기침체에 직면한 통신장비시장의 구도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 표 > 통신장비업체의 매출기준 업계 순위의 변화

업체명	순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AT&T/Lucent	3	2	3	1	1	1	1
Ericsson	7	5	5	3	3	2	2
Northern Telecom	5	7	7	7	7	5	3
Siemens	2	4	4	5	5	6	4
Alcatel	1	1	1	4	4	3	5
Nokia	10	9	9	9	9	7	6
Motolora	4	3	2	2	2	4	7
Cisco		16	10	10	10	9	8
NEC	6	6	6	6	6	8	9
Fujitsu	8	8	8	8	8	11	10

자료: Gartner(200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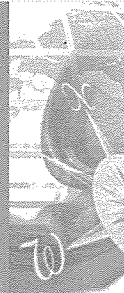
통신장비시장 동향

경기침체로 인한 통신장비업체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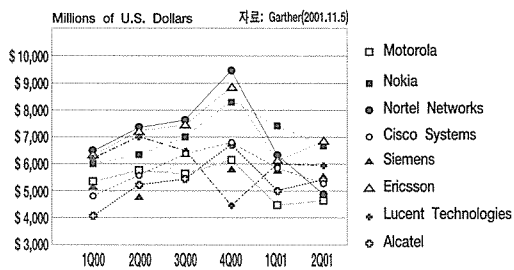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모든 통신장비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스코, 루슨트, 모토롤라, 노텔 등, 북미업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편이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의 설비투자 감축 규모와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특히 미국 업체들의 감축규모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미국 통신장비 주문량은 경기침체 및 911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슨, 노키아, 알카텔 등 유럽업체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이다.([그림] 참조). 하지만 유럽 업체 또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조만간 북미업체와 같은 수준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북미지역의 시장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장비업체 대부분은 경기침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시장 역시 10월 중국 차이나유니콤이 설비투자 감축을 발표하는 등 중국, 한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장비수요 역시 감소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통신시장 개방이 기



대외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바 다른 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지역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시아시장 진출에 성공한 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주요 통신장비업체 분기별 매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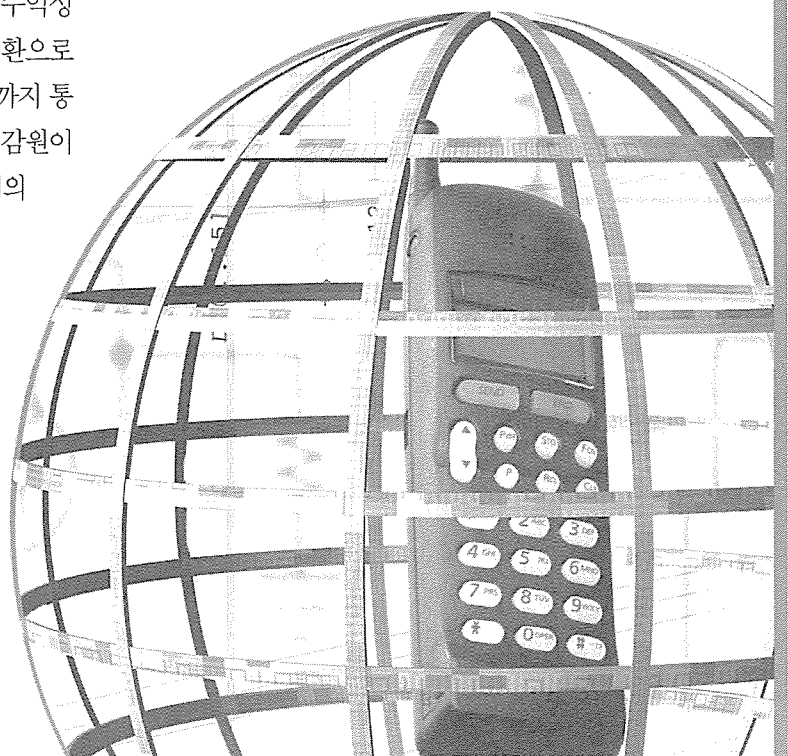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통신장비업체는 과거 성장성 중심의 전략에서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감한 인력감축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통신장비산업 내에서 무려 20만명 이상의 감원이 진행된 상황이며, 그 중 8대 통신장비업체의 감원 규모가 10만명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전망

북미시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므로 북미시장의 회복은 통신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북미시장은 전체 통신장비 시장에서 규모가 제일 클 뿐만 아니라

기술선도시장이란 측면에서 업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모든 공급업체들이 북미지역 시장 장악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동원력이 뛰어난 몇몇 기업만이 북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시장은 업체간 옥석 가리기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 통합 솔루션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지멘스와 시스코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기업부문에 대한 사업비중을 줄이고 우수 고객인 통신서비스사업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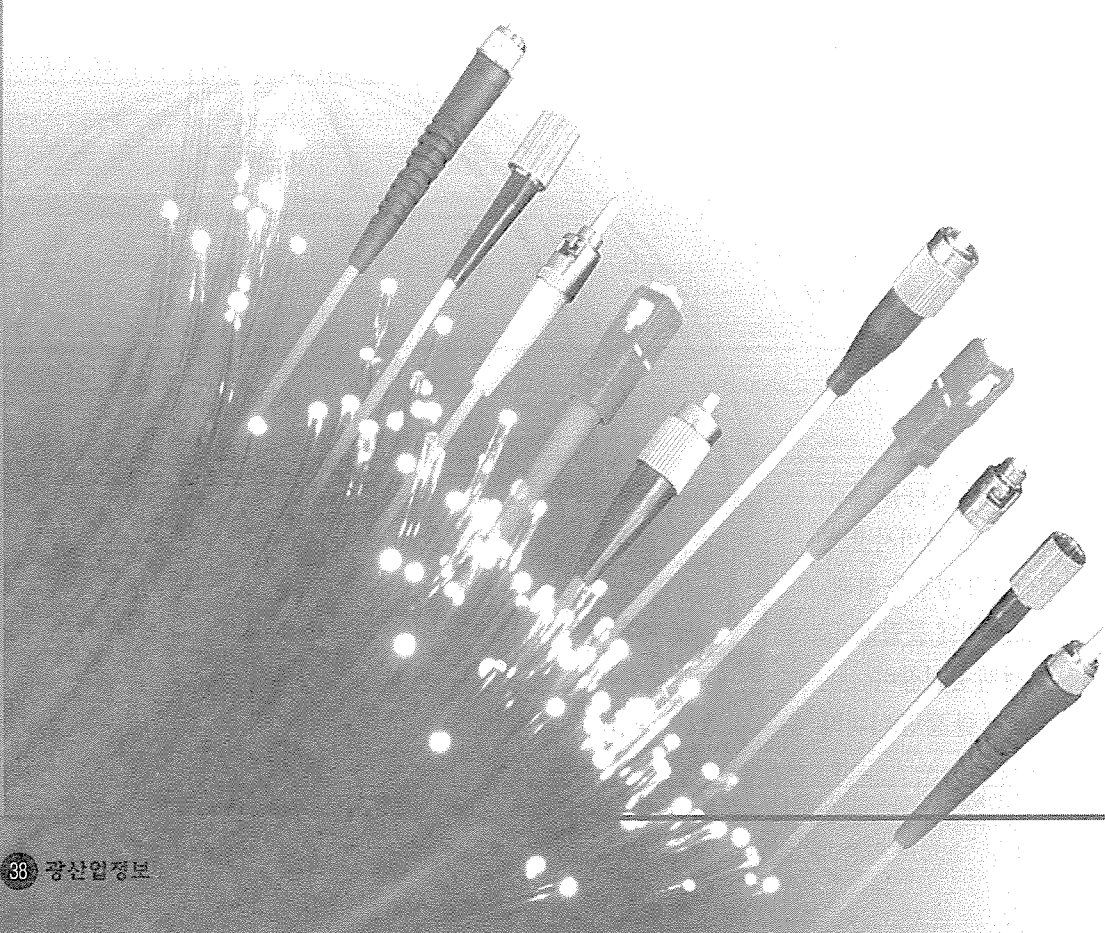
이는 다른 통신장비업체들의 기업부문 사업부에 대한 매각과 소규모 업체들과의 합병을 초래해 더욱 거대 통합된 기업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체가 탄생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통신서비스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장비공급업체들은 협상전략의 제고, 고객과의 혁신적인 장기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이윤률 감소와 신용거래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통신서비스업체의 수익률 감소와 장비대금 상환 일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통신 장비업체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공급계약 조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요 8대 통신장비업체 모두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어, 아시아지역 통신서비스 업체들에게는 공급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장비업계 전망

시장축소에 직면한 통신장비업체들은 다시금 전략을 수정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장기비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주요 8개 업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성장성이 아닌 수익성을 중심에 둘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분기 별로 큰 매출 변화는 없을 것이며 업계 내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05년까지 통신장비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주요 업체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의 핵심사업 내용이나 사업방식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과거 거대하고 다각화되어 있던 업체는 향후 특정 부문에 특화되고 주로 상위 10개의 통신서비스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방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또한, 통신장비업체가 우수고객에 자원을 집중함에 따라 통신서비스업체용 장비업체와 기업용 장비업체간의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신장비업계에도 수직시장 중심의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전망된다.

(참고문헌)

Gartner, 'Preliminary Worldwid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Overview, 1999 through 2004,'

Market Trend, 2001.3.26.

'Shake-Up Looms for Eight Leading Telecom Vendors,' 2001.11.5.

< 이 자료는 신성문, 세계 통신장비업체 향후 전망, KISDI IT Focu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년 12월호 자료임. >

